

# 한국 현대사 격동의 현장...카메라로 담은 '발로 쓴 역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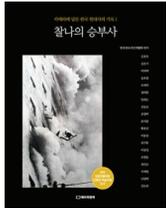
## 찰나의 승부사

(사)한국보도사진가협회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는 참혹한 비극의 시간이었다.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19일 월요일 오전, 어느 젊은이가 공수부대원이 마구 휘두르는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촬영한 기자가 있었다. 나경택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 기자였다. 그러나 당시의 계엄당국의 검열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진은 물론 기사 한 줄 보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문순태 부군장과 윤길전 사진부장과 은밀히 상의해 계엄군이 시위대를 폭력으로 강제해산하는 현장과 공수부대원의 만행 사진 등을 서울 UPI통신 정태원 기자와 AP통신 김진길 기자에게 보내 해외에 전승하여 광주의 진실을 알렸다.”

언론사 사진기자 출신들의 포토저널리스트 클럽인 (사)한국보도사진가협회가 펴낸 '카메라에 담은 한국 현대사의 기록 1-찰나의 승부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협회 뿌리는 60년대 신문사와 통신사 위주 한국사진기자단이며, 한국사진기자회를 거쳐 현재의 (사)한국사진기자협회가 됐다.



찍어왔다고 한다.

'카메라에 담은 한국 현대사의 기록 1-찰나의 승부사'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격동의 시대를 담은 사진기자 19명의 사진과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카메라로 기록한 '발로 쓴 역사'다.

한국 현대사 격동의 현장에는 언제나 사진기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때로는 냉정한 시선으로 때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의 단면을 기록했다.

사실 사진이 당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말은 고전적인 정의가 된 지 오래다. 인간의 삶과 감정을 오롯이 표현하기 때문인데 때론 긴 글보다 한 장의 사진이 명료하게 진실을 전달한다.

이번 책에는 앞서 언급한 '카메라로 불의에 저항했던' 나경택 기자를 비롯해 '순수한 사진 신사' 이의택, '변칙 없는 원칙주의자' 송호창, '한국 민주화에 쏘아 올린 공' 정태원 등이 소개돼 있다.

또한 '특종을 낚는 미스터 스쿠터' 윤석봉, '특종 전문, 영원한 현장기자' 권주훈, '테마가 있는 사진가' 전민조, '평생 공부하는 사진가' 이봉섭 등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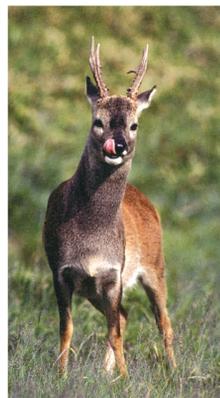
이장성은 '타고난 현장 승부사'로 불린다. 1975

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미 육군 헨더슨 소령을 폭행한 사건을 촬영했다. 그날은 군사정전위원회 제364차 본회의가 열린 날이었다. 유엔군 소속 헨더슨 소령이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북한 기자가 "자리를 비키라"며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는 먼저 주먹을 날렸고 헨더슨도 반격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장성은 순간적으로 목에 걸고 있던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다. 사진은 외신을 타고 세계 톱뉴스로 나갔으며 이듬 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유재력 사진가는 어릴 때부터 사진을 좋아해 외국 사진책을 섭렵했다. 한양대 공대생이었지만 학보사 사진기자를 했다. 동화통신사에 입사해 사진

기자로 활약했다.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과의 인연으로 패션 사진을 개척했으며 이후 광고사진도 촬영했다. 잡지를 거쳐 동아일보사 로스카우트팀다 큐멘터리 사진도 공부하고 찍었다. 그러다 그는 광고사진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부도를 맞기도 했다. 역동적인 삶을 거처며 "사진은 카메라라는 기



사채철이 촬영한 멸종 위기였던 한라산 노루(1961년 6월)



Kyung-tae Na, Angle & Eyes: Gwangju Uprising, 1980. A slide presentation based on fifty-three original photographs.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일보 나경택 기자에 의해 외국에 처음 보도된 사진.

계의 조작술을 익혀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추구해야 할 메시지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책에는 가장 재주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온 서재철 기자의 이야기, 잡지 황금기의 증인이자 출판 사진의 선구자인 김문권의 발자취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이한열 열사의 마지막 장면을 비롯해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의 현장, 대연각호텔 화재 사건 당시 필사의 탈출 장면, 88서울올림픽을 비롯한 경기의 감동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담고 있다.

<페이퍼백·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5개 원소로 읽는 결정적 세계사

썬아페이 지음, 이신혜 옮김

인류 문명에서 구리는 중요한 원소 가운데 하나다. 청동기 시대 청동 무기는 인류사회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었다. 고대 중국의 합금 기술이 기록된 '고공기'에는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나온다. 춘추전국시대 변방에 머물렀던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 판도를 바꾸게 된 계기는 청동기 기술이었다. 두 나라는 월왕구천검 등 많은 명검을 제작했으며 병사와 평민 모두 검을 지니고 있을 만큼 전투에 능했다.

원소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역사적 매개체다. 인류는 고탄소 섬유로 제작된 옷에 익숙해지면서 합성섬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원소에 새겨진 인류의 결정적인 순간을 담은 '5개 원소로 읽는 결정적 세계사'는 흥미로운 책이다. '세상 가장 작은 단위로 단숨에 읽는 6000년의 시간'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중국의 촉망받는 신에너지 관련 화학자이자 인기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책은 출간 후 유행 하라리의 '사피엔스' 등이 수상한 그해 최고의 도서에게 주어지는 원진도서상을 수상했다.

인류는 황금 약탈의 시대를 거쳐 구리와 주석의 청동기 시대를 지나 규소가 남긴 기록을 읽고 현재는 고탄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앞으로는 타이타늄이 가져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원소를 매개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읽게 된 것은 주기율표를 중심으로 물질의 근원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책은 역사와 과학, 교양의 경계를 오가며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채롭게 풀어낸다.

<더 퀘스트·2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모든 순간의 공간들

이주희 지음

평범한 일상이지만 특별한 시간이 머문 공간들에서의 경험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공간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중한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오십이 되었다', '이토록 멋진 오십이라면' 등을 통해 오십 이후의 삶의 태도와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방법을 전한 이주희 작가가 신작 에세이 '모든 순간의 공간들'을 펴냈다. 작가가 50여 년 살아오면서 소란하지만 행복했던, 다정한 '그곳'에 대한 단상들이다.

책은 작가 자신의 서사를 만든 스토리텔링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담았다. 목욕탕, 시장, 카페, 수선집, 도서관, 스포츠 센터, 미술관 등 평범하고 친숙한 일상의 장소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새로운 나를 만난다.

타인의 시선-목욕탕 편에서는 엄마 손 잡고 다녔던 목욕탕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 어른이 된 후 다시 찾았던 목욕탕에서의 일상을 소신하게 소개한다. '빛은 몸에는 가난과 차별, 무지와 조롱이 들어설 틈이 없다. 모든 오해와 고집, 무지, 그리고 혐오가 때로 밀려 허수아구로 흘러 들어가고 따뜻한 위로와 포용이 남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특정한 공간에서의 특정한 경험은 때로는 인생 전체보다 더 서사적이어서 하나씩 꺼내어 살피다 보니 더 확장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어떤 기억은 단단한 박음질로, 어떤 장소는 성긴 훌치기로 남아 있었지만 그 모두가 나를 지탱하는 대들보임을, 나라의 웃을 지는 재료임을 깨달았으니 그 모든 시간과 공간에 감사하다."

<청림출판·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세상에서 가장 짧은 전쟁사

그린 다이어 지음, 김상조 옮김

연일 격화되고 있는 우리 전쟁과 맞물려 러시아가 최근 핵사용의 원리원칙을 담은 '핵 독트린'을 개정했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 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리를 바꾼 것. 이에 따라 매일 백만 명이 이상이 죽어 나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적' 평화를 유지하던 세계열강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3차대전까지 언급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역사가이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런던대에서 군사 및 중동 역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린 다이어가 펴낸 '세상에서 가장 짧은 전쟁사'는 국제사 속에서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고 끝났는지 살펴보는 책이다. 나아가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전투의 기원과 진화, 절대군주와 국지전 양상 및 총력전과 핵전쟁의 비극사까지 둘러본다.

저자는 전쟁도 일종의 '제도'라고 간주하면서 이 제도를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탐구한다. 영장류의 대결 구도부터 에리코, 수메르 등 도시국가의 패권 찬탈의 역사, 유목민과 문명국 세력의 대립 구도 등을 훑어 나가는 한편, 카르타고와 로마의 대결,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과 미국 남북 전쟁, 세계 1-2차 대전까지 굵직한 전쟁사를 조망한다.

전쟁-죽음에 대해 탐구하는 책이지만, 저자는 그와 동시에 타인을 '죽이기 싫어하는' 인간 본능에 대해서도 성찰한다. 드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제거한 뒤 트라우마에 휩싸이거나 눈앞의 적을 대면하고도 허공에 총을 발포하는 경우들이 그 예다. 그러면서도 국방예산을 증가하고 있는 열강과 고도화되는 병력 훈련의 양상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린다.

<진성북소·2만3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지 점 062)372-3741~2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